

“한류”습격: 정신침략? 문화융합?

정우조사 장동량(张东良)

최근 <독자편지에서 시작된 생각>을 읽고 설레이는 마음을 오랫동안 진정시킬수가 없었다. 여기에서는 중국 태권도 인터넷 연맹협회의 한 기사를 실었는데, 그 내용은 한국의 태권도가 중국 소학교의 필수과목으로 될 것인데 이미 논증을 거쳐 조만간 실행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우선, 중국의 전통무술의 주장: 천하 쿵푸는 한집안이다. 중국인은 절대로 속이 좁지 않다. 외국의 무예 기술이 중국에서 뿌리를 내리고 발전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 방식만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무술이든 평등한 경쟁을 전제로 해야 한다. 하지만 만약 태권도를 중국 소학교의 필수과목으로 정해 중국의 자손들이 어릴 때부터 반드시 한국문화 낙인이 찍힌 무술을 배워야 한다고 하면 이는 일종의 강제적인 행위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만약 수많은 무술 중에서 학교가 꼭 한가지 무술교육을 실시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중국 무술과 세계 기타 국가의 우수한 무예기술 중에서 학생들이 임의로 선택해야만 공평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어린이들이 아무런 선택여지가 없이 무조건 태권도를 배워야 한다면 너무 불공평하지 않을까? 사실 중국에서 중국 무술을 필수과목으로 하고 외국 무술을 선택 과목으로 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렇지 않을 경우 중국의 민족정신에 피해를 주게 될 것이며 유구한 중국 무술이 세계에서 위상이 떨어질 것이므로 중국의 무술인들은 절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문화를 자신이 소중히 여기지 않고 어떻게 세계 기타 국가에 선양할 것인가?

현재 우리 주위에는 이르는 곳마다 "하한" 현상이다. 한국의 노래, 영화, 드라마, 스타..."한류"열풍이 세차게 불고 있다. 이에 성차지 않아 이젠 한국의 태권도까지.....

그렇다면 한국은 무엇이든 중국보다 좋은것인가? 태권도로 볼 때, 태권도 기술이 아주 훌륭하다 할지라도 중국 국내에서는 한국 본토의 진정한 태권도를 볼 수가 없다. 전통적인 태권도는 일련의 체계화된 내용들로 구성 되었으며 절대로 현재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특기"자랑과 같이 간단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태권도를 중국 소학교 필수과목으로 설정할 정도로 중국인들이 떠받들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중국 태권도를 예로 들어 대부분 중국인들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